

국화·역사문화 연계 ‘화순 고인돌가을꽃축제’ 16일 팡파르

도곡·춘양면 일원 25일까지 열흘간 개최
선사시대 체험·카카오 춘식이 마을 놀길
탐방·교육 프로그램...정상급 가수 무대도
입장료 5천원 지역상품권으로 전액 환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 국화와 청동기 시대 역사 문화를 결합한 대규모 테마 행사를 선보인다.

11일 화순군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도곡면 효산리·춘양면 대신리 일원에서 ‘2026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꽃길 따라 만나는 천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유적지 역사 가치와 경관을 결합해 전 세대 방문객을 공략한다.

핵심 콘텐츠는 정체성을 대폭 강화한 ‘고인돌 유니버스’(DM·DolMen)다. 축제장 내 켜돌이 마을을 중심으로 청동기 시대 의상 착용, 사냥, 장신구 만들기, 고인돌 작명소, 팔주령 비누 공방, 켜돌이 과자 제작소 등 선사시대 생활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화순군이 도곡·춘양면 일원에서 ‘2026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오는 16일부터 열흘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고인돌가을꽃 축제 전경. <화순군 제공>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춘식이’를 접목한 춘식이 마을에는 대형 에어별론과 포토존, 역사로드를 조성해 청년층 접근성을 높였다.

도곡 고인돌 잔디광장 일원에는 포토정원과 국화정원, 나비정원 등 테마별 식재 공간을 조성

하고 국화 본재도 전시한다.

춘양 지역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동물정원과 놀이터를 배치했다.

주무대에서는 장르별 기획 공연이 이어진다. 17일 트롯, 18일 레트로와 록, 25일 발라드를 테마

로 김다현·나상도·임찬·홍경민·박미경·트렌스 픽션·존박·알라·소란 등 정상급 가수가 무대에 오른다.

행사장 밖으로 이어지는 연계 프로그램도 다 각화했다. 춘식이 스탬프 투어와 ‘도장찍고 건강

챙기고’ 행사를 통해 방문객 동선을 화순고인돌 전통시장과 운주사 등 관내 주요 관광지로 유도한다.

화순청소년문화유산해설사가 동행하는 탐방 프로그램은 괴바위, 관청바위, 팽매바위, 감태바위 등 핵심 유적을 돌아보며 역사 교육을 제공한다.

향토 단품 음식 부스와 푸드트럭,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며 화순문인협회 시화전, 제3회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 선사시대 생활 재현 공연이 동시 개최된다. 광덕문화광장에서는 소상공인 상생한마당과 트롯 가수 팬사인회가 열린다.

군은 2천원 이상 주차장과 순환버스를 확보하고 식음료 부스 내 다화용기 사용과 분리배출 스테이션을 도입해 친환경 축제를 구현할 계획이다.

행사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16일 군민의 날은 무료 입장이며 17일부터 일반 관람객 입장료 5천원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된다.

이맹우 관광체육과장은 “유적지의 역사 가치를 알리고 다채로운 꽃 경관과 선사시대 체험을 충족해 엮었다”며 “방문객 발길이 지역 곳곳으로 이어져 삼권 경제 활력의 획기적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 인구 유출 막는다

읍내리 일원 3천여㎡ 규모 55세대
1인·신혼가구 수요 반영 임대 공공
2028년 초 입주 정주 인프라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이끌 핵심 정주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곡성군에 따르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층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정착을 돕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 대상지인 곡성읍 읍내리 일원에는 대지면적 5천789㎡, 연면적 3천549㎡ 규모로 공공임대주택 2개 동 총55세대가 들어선다.

특히 1인 가구부터 신혼부부까지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해 전용면적 37㎡의 청년형 30세대와 59㎡의 신혼형 25세대로 각각 맞춤형 설계됐다.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 조성 사업 현장 모습. <곡성군 제공>

광역시·기초 지방소멸대응기금 154억원과 군비 46억원 등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2023년 공모사업 선정 후 행정 절차를 마치고 올해 2월 첫 삽을 떴다.

2027년 1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와 선정을 진행해 11월 준공한 뒤 2028년 1~2월 본격 입주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하우징타운 조성을 통해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곡성에서 직장가 가정

을 이루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년하우징타운 외에도 지역 여건에 맞춘 다각적인 청년 주거·정주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거비와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청년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맞춤형 하우징타운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다시 찾아오는 곡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영필 기자

담양군,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 조건부 선정

죽림·성산·두장·대소산 등 4개 마을
절차 보완 행정 지원...소득망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신청한 4개 마을이 모두 조건부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금성면 죽림·고서면 성산·용면 두장·대덕면 대소산마을로 1차 창평면 부동마을에 이어 사업망이 확대됐다.

해당 사업은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마을 공동 기금·주민 복지에 활용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태양광 설치비를 최대 85%까지 금융 지원한다.

조건부 선정은 사업 계획 타당성은 인정됐으나 부지·자금·계통 등 일부 절차 보완이 필요한 경우다. 4개 마을은 6개월 이내 보완 사항을 이행한 뒤 최종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군은 대상 마을이 기한 내 보완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실무 행정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연숙 투자유치단장은 “주민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수익을 지역과 나누는 기반을 넓히게 됐다”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흥군 ‘군민 체감형 행정’ 추진 박차

민선 9기 68개 공약 실천계획 보고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11일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시·군·도정 주요 부서로 민선 9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열어 부서별 이행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핵심 공약 사업 실천 계획을 재점검하고 권역별 보육 기반을 확충하는 등 군민 체감형 행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민선 9기 공약은 신성장 실현, 문화관광, 농어촌 소득증대, 포용도시조성 등 4대 분야 총 68건이다. 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장흥과 청년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보육 인프라 부족 현상을 뜻하는 이른바 ‘육아 난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키즈랜드 조성안을 구체화하고 밀착형 돌봄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군은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실천 계획을 보완한 뒤 최종 확정하고 분기별 정기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시·군정 장흥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엄중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실질적 성과로 직결돼야 한다”며 “임기 내 군민이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부서장들이 현장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광양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의

사업 타당성·우선순위 검토 후 배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최근 20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 시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사업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심의했다. <사진>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위원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과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시민 수혜도와 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해 주민제안사업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은 지역별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올해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민 수요와 사업의 시급성·효과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은 심의 결과와 사업별 우선순위, 부서 검토 내용,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7년 본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종 검토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정신출 여수시의원, AI 기반 빈집 관리 모색

전문가·주민 40여명 정책 토론회 개최
1천693호 점검·도시재생 연계 등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회는 11일 “최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신출 의원(대교·국동·월호) 주관으로 지역 내 빈집 현황을 점검하고 예방·관리·활용 중심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관계 공무원·도시재생지원센터·교수·건축사·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제에 나선 성은영 국립목포대학교 교수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한 별도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 철거 방식을 탈피해 거주 가능 여부 등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실태조사 결과, 여수지역 빈집은 총 1천693호로 집계됐다. 개별 위험 빈집 철거·안전 조치를 병행하고 밀집 지역을 도시재생·농어촌 공간 정비 사업과 연계한 공간 단위 정비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민대표·전문가 그룹은 악취·붕괴 위험 등 생활 피해를 공유하며 소단위 주거 환경 개선·마을 호텔 조성 등 실질적인 정비안을 제시했다.

정신출 의원은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위험 빈집 안전 관리·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관련 조례를 보완해 적극 행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